

上博楚簡《周易》訟卦 譯註

김정남*

<목 차>

1. 서론
2. 원문 隸定 및 전래본과의 비교
 - 2.1 上博楚簡《周易》訟卦 원문
 - 2.2 전래본《周易》訟卦와의 비교
 - 2.3 上博楚簡《周易》訟卦 한국어 해석
3. 고문자 隸定 관련 譯註
 - 3.1 4號簡
 - 3.2 5號簡
 - 3.3 6號簡
4. 원문 확정 관련 譯註
 - 4.1 4號簡
 - 4.2 5號簡
 - 4.3 6號簡
5. 결론

1. 서론

전래본 《周易·訟》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象傳>에서 “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 (訟은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여 험하고 굳센 것이訟이다.)”라고 하였으며 <象傳>에서는 “天與水違行, 訟, 君子以作事謀始.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訟이니 군자는 이것으로 일을 하는데 시작을 잘 도모한다.)”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라고 하였다. <書卦傳>은 “飲食必有訟，故受之以訟。(음식에는 반드시 쟁송이 있으니 쟁송으로써 그것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였다. 《周易傳義》에 따르면訟卦는 ‘乾’이 위에 있고 ‘坎’이 아래에 있어서 하늘의 양기는 위로 가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임하려하기 때문에 가려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 송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¹⁾ “訟”은 “호소하다” 또는 “소송하다”를 가리킨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 포함하고 있으며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訟卦>의 내용을 묻는 주체는 왕과 접촉하는 지위가 높은 귀족이며訟卦는 당시 귀족 계층의 주된 관심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추측된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후대인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周易》 관련 출토문헌 판본이 등장하는데 이 중 上博楚簡《周易》은 보존 상태가 좋고 가장 오래된 판본이므로 전래본과의 대조 연구에 상당히 유용하다. 본 연구는 上博楚簡《周易》에서 괘효사가 온전하게 남겨진 13개 괘 중에서訟卦를 살펴보고 언어와 문자 측면에서 전래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원문 隸定 및 전래본과의 비교

2.1 上博楚簡《周易·訟》 원문

원문 내용 중, 추가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 숫자로 표시하였다. 고문자 隸定에서 추가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3장, 원문 확정과 관련된 역주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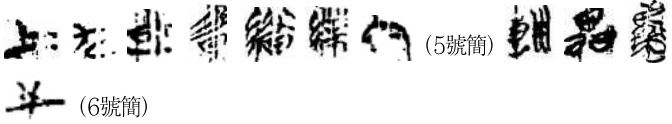
1) 爲卦乾上坎下，以二象言之，天陽上行，水性就下，其行相違，所以成訟也。

2.1.1 고문자 隸定²⁾

卦劃 卦名 및 卦辭	
楚簡본 실제 자형	
隸定	三爻(1) 訟 又孚, 憲(2) 憲(3), 中吉, 升(4)凶. 利用見大人, 不利蓋大川.
初六 爻	
楚簡본 실제 자형	
隸定	初六(5), 不出(6)事, 少又言, 升吉.
九二 爻	
楚簡본 실제 자형	(4號簡)
隸定	九二, 不(7)變(8)訟, 遯(8)膚, 升邑人晶 (4號簡) 四戶, 亡(9)慕.
六三 爻	
楚簡본 실제 자형	
隸定	六晶, 飮(舊)息, 貞(確), 升吉. 或(迅)王事, 亡成.
九四 爻	
楚簡본 실제 자형	
隸定	九四, 不(變)訟, 遯(即)命(10), 愈安, 貞吉.
九五 爻	
楚簡본 실제 자형	
隸定	九五, 訟, 元吉.
上九 爻	

www.kci.go.kr


2) 아래 비교표는 원용준의 <上博楚簡<주역> 卦 考 고찰>(《儒教思想文化研究》 第60輯, 2015년 6월)에 쓰인 爻효사 異文 비교표 양식을 참고하였다.

楚簡本 실제 자형	
隸定	上九, 或賁緇(11)緇, 丹(5號簡) 朝晶(12)之(6號簡)

2.1.2 원문 확정³⁾

三訟 訟■ 有孚(13), 怪(14)惕(15), 中吉, 終凶. 利用見大人, 不利涉大川. 初六, 不出御(16)事, 小有言, 終吉. 九二, 不克(17)訟, 歸逋(18), 其邑人三(4號簡)四(19)戶, 無眚. 六三, 食(20)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21), 無成. 九四, 不克訟, 復即命, 渝安, 貞吉. 九五, 訟, 元吉. 上九, 或賜鞶帶(22), 終(5號簡)朝三剝(23)之■ (6號簡)

2.2 전래본 《周易》 訟卦와의 비교

卦劃 卦名 및 卦辭	
楚簡本	三訟 訟■ 有孚, 怪惕, 中吉, 終凶. 利用見大人, 不利涉大川.
전래본	 訟, 有孚窒惕, 中吉,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初六 爻
楚簡本	初六, 不出御事, 小有言, 終吉.
전래본	初六, 不永所事, 小有言, 終吉.
	九二 爻
楚簡本	九二, 不克訟, 歸逋, 其邑人三四戶, 無眚.
전래본	九二, 不克訟, 歸而逋, 其邑人三百戶, 無眚.
	六三 爻
楚簡本	六三, 食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 無成.

3) 출토문헌에 쓰인 고문자는 대다수가 본래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는 한정된 한자로 그 당시 언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차, 통가 현상을 적용하여 의미가 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죽간의 원문을 2.1.1 고문자 隸定과 2.1.2 원문 확정 두 파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전래본	六三, 食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 無成.
九四 爻	
楚簡本	九四, 不克訟, 復卽命, 渝安, 貞吉.
전래본	九四, 不克訟, 復卽命, 渝, 安貞吉.
九五 爻	
楚簡本	九五, 訟, 元吉.
전래본	九五, 訟, 元吉.
上九 爻	
楚簡本	上九, 或賜鞶帶, 終朝三褫之
전래본	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2.3 上博楚簡 《周易》 訟卦 한국어 해석

訟, 진실된 마음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송사를 진행하면 도중에는 길하겠지만 마지막은 흉해진다. 대인을 만나면 이롭고,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初六,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다소 질책이 있겠으나 결국은 길하다. 九二, 쟁송할 수 없다보니 돌아가 숨었는데 그 읍의 인구가 12호 밖에 안될 만큼 작은 규모라면 재앙은 없을 것이다. 六三, 선조의 덕으로 봉록을 받으며, 점괘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길하다. 혹은 왕조의 대사에 종사해도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九四, 쟁송할 수 없어 돌아와 곧장 명령을 따르며 쟁송하려는 마음을 바꾸니 마음이 편해지고 점괘가 길하게 나온다. 九五, 송사를 벌이는데 크게 길하다. 上九, 흑여 관복을 하사받아도 아침에 세 번 (옷을) 빼앗길 것이다.

3. 고문자 隸定 관련 譯註

www.kci.go.kr

역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범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석문(釋文)’은 죽간 자료에 쓰인 자형을 현재의 해서체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며 의미는 풀이하지 않는다. ‘석독(釋讀)’은 재현한 한자의 의미를 규명하여 그와 상응하는 현재의 한자로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주에서 “~을 석문한다”라고 하면 의미를 배제한 자형 분석이며 “~을 석독한다”라고 하면 의미를 반영하여 현재 통용하는 한자로 풀이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를 소개할 때 해당 연구자의 성명으로 하며, 한국 한자음에 따라 표기한다.

세 번째로 上博楚簡 《周易》의 저본으로 마승원(馬承源)이 주편(主編)을 맡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古籍出版社, 2003년 12월)을 이용하였다. 이 도서에 수록된 上博楚簡 《周易》 정리 내용은 복모좌(濮茅左)가 최초 집필한 내용이다. 따라서, 저본의 내용을 언급할 때 “복모좌(濮茅左)”로 표기한다.


3.1 4號簡





(1) 三爻는 전래본 《周易》 6번째 卦인 訟의 卦畫 ‘☶☵’에 해당한다. 上博簡 《周易》 卦劃의 형태를 살펴보면, 陽爻는 전래본 형태와 동일하지만 陰爻는 ‘八’와 같다. 따라서 ‘八’를 ‘--’로 바꾸면 訟卦와 동일하다. ‘☶’는 하늘을 뜻하는 ‘乾’이고 ‘☵’는 물을 뜻하는 ‘坎’이다.




(2) 는 ‘心’이 부수, 이 성부인 형성자로 추정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부 을 ‘憲(체)’로 석문하는 견해와 ‘步’의 이체자로 해석하여 ‘步’를 성부로 삼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성부를 ‘憲’으로 석문할 경우, 전래본 《周易》의 ‘窒’과 상고음은 일치하지만 ‘憲’의 갑골문인  (京都 1957),  (前2.278)

과 금문  (楚籀),  (秦公籀)과 자형상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계옥승(季旭昇)과 진사봉(陳斯鵬)은 ‘寔’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止’와 ‘田’의 결합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진사봉(陳斯鵬)은 ‘寔’의 상단부 자형이 ‘止’와 ‘田’의 결합형으로 변한 것은 “의도적인 개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寔’의 자형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형의 중간 부분이 ‘田’으로 생략되면서 표음 작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寔’와 상고음이 유사한 ‘日’로 대체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田’과 ‘日’이 혼용된 것은 戰國시기 문자의 일반적 특징이지 표음 기능을 위해서 바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水’를 부수로 삼는 것처럼 세 번째와 네 번째 자형도 ‘田’이나 ‘日’을 부수로 삼는 자형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⁴⁾













또한 계옥승(季旭昇)은 본래 ‘止(좌)’가 <楚籀>와 같이 ‘止’로 변하고 睡虎地秦簡 《封診式》의  처럼 금문  과  등의 자형들이 ‘田’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자형상  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⁵⁾



진사봉(陳斯鵬)과 계옥승(季旭昇)이 동시에 범하고 있는 오류는 갑골문과 금문 자형의 중간 부분이 ‘田’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진사봉(陳斯鵬)이 제시한 그림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자형의 중간 부분, 그리고 계옥승(季旭昇)이 제시한 睡虎地秦簡의 상단부  은 ‘田’과 전혀 상관없다. 이는 ‘寔’의 고문자 자형이며, <中山王壺>에서 ‘寔’로 석문하는  과 上博楚簡 《緇衣》에서 寔로 석문하는  의 상단부와 같다. 《睡虎地秦簡文字編》에서 ‘寔’을 ‘寔’로 석문하여 ‘寔’로 석독하였지만, 그보다는 ‘寔’은 ‘寔’과 ‘止’의 결합형으로

4) 陳斯鵬, <讀上博竹書(五)小記>, 簡帛網, 2006년 4월 1일.
5) 季旭昇, <上博三周易簡六“朝三褫之”說>, 簡帛研究, 2004년 4월 16일.



석문하는 것이 타당하다.⁶⁾

한편으로 자형의 측면에서 본다면 ‘田’이 포함된 ‘步’의 이체자형과 일치하지만 ‘窰’와 발음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진사봉(陳斯鵬)은 ‘田’이나 ‘日’이 포함된 ‘步’의 이체자형은 傳抄 古文에 근거하여 ‘步’로 석문하나 출토문헌에서 이 자형이 확실하게 ‘步’의 의미로 쓰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包山楚簡도 이 자형은 인명으로만 쓰였을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步’로 석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步’는 자형 그대로 한 쌍의 ‘止’와 ‘田’의 결합형으로 석문해야 한다. 《周易》 4호간의 을 ‘水’가 부수인 ‘步’자로 석문하는 것과 같이 편방 구조가 유사한 도 역시 부수가 ‘田’인 ‘步’으로 석문할 수 있다. 《汗簡》에서 는 ‘步’의 고문으로 석문하고 있으나 《說文》에서는 오히려 ‘步’의 소전체 자형보다는 ‘步’의 古文 을 구성하는 편방 과 일치한다. 따라서 ‘步’보다는 ‘步’과의 관련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장계광(張桂光)은 <中山王方壺>의 를 분석하는데 《說文》의 ‘步’ 고문 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宀’은 ‘宀’의 와변형이고,⁷⁾ 의 ‘日’은 ‘田’의 와변형이다. 또한 갑골문의 ‘阜’은 ‘阜’로 구성된  (前 530-6)과 ‘宀’으로 구성된  (乙 5296)이 있다. 즉 ‘阜’와 ‘宀’이 서로 바뀌어 쓰인 사례가 있으므로 은 ‘步’으로 석문될 수 있다.⁸⁾ 또한 <三體石經>에서 ‘阜’가 의부로 추가된 을 볼 수가 있다.















종합하면 ‘步’는 을 근거로 ‘步’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心’




6) 張守中 撰集, 《睡虎地秦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년 2월, 57쪽.

7) ‘宀’로 석문하는 <師襄篋>의 과 <克鼎>의 을 비교해보면 ‘末’의 하단부 자형이 각각 ‘人’과 ‘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張桂光, <古文字考釋十四則>, 《古文字論集》, 中華書局, 2004년 1월.






을 부수로 삼는 憲으로 석문할 수 있다.












(3) 4호간  은 憲으로 석문한다. 上博楚簡《周易》38호간에서 '憲'로 석문하는 , 《曹沫之陳》14호간  은  의 상단부와 일치한다. 계옥승(季旭昇), 요명춘(廖明春)이 석문한 '憲'의 '商'은 《說文》에서 부속자로 제시된 자형은 아니다.⁹⁾ 대신 '商'을 성부로 삼고 있는 '適'의 소전체  과 '摘'의 소전체  을 살펴보면, '商'이 아닌 '帝'와 '口'가 결합된 '憲'임을 알 수 있다. 즉 '商'은 '憲'의 후기자로 볼 수 있다. 睡虎地秦簡의 '憲' 또한  와 같은데 마찬가지로 '帝'와 '口'가 확연히 구분된다. 銀雀山漢簡의 '憲'는  와 같다. 이는 현재 쓰이는 '商'의 자형 구조와 유사하다. 또한 '適'으로 석문하는 자형은 ,  이 동시에 존재하며, '敵' 또한 ,  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銀雀山漢簡이 제작된 시기에는 이미 '憲'가 '商'처럼 쓰이기 시작하거나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을 편방으로 포함하는 楚文字를 석문할 때, 시기적으로 戰國時代이므로 '商'와 같은 자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商'보다는 '憲'로 석문해야 하며,  을 '憲'으로 석문하기보다 '憲'으로 석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上博楚簡《周易》4호간의  외에도 2, 5, 9, 14, 18, 39호간에서 이와 유사한 자형을 볼 수 있다. 4호간의  은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으나 5호간  는 上博楚簡《彭祖》3호간의  과 비슷하며 이는 《說文》에서



9) 廖明春, <楚簡周易校釋記(一)>, 《周易研究》, 2004년 第3期. 계옥승(季旭昇) 의견은 각주 4번과 동일.











‘終’의 고문으로 제시된 과 비슷하다. 은 중간 부분에 한 획으로 이어져 있으나 청동기 銘文의 終은 <曾侯乙鍾>의 나 <善夫克鼎>의 은 초간과 같이 두 획이나 두 점으로 되어 있다. 이 자형은 ‘冫’으로 석문한다. ‘冬’은 청동기 銘文에서  (陳章壺)와 같고 上博楚簡 《緇衣》에서는 과 같다. ‘冬’으로 석문하는 자형은 ‘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冬’으로 석문할 수 없다.

(5) 는 파손되어 자형 전체를 완전하게 볼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자형은 ‘初’이며 파손된 부분 다음으로 쓰인 자형이 ‘不’로 석문한다. 이는 전래본과 帛書本 모두 “初六, 不…”과 일치하므로 죽간의 파손으로 인하여 결손된 자형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일부 자형이 남아 있는 는 ‘六’으로 석문할 수 있다. 2호간의 도 7호간의 도 ‘六’으로 석문한다. 이를 과 비교해 봤을 때 자형이 유사하므로 ‘六’으로 석문하도록 한다.




(6) 4호간 은 1호간의 과 같이 ‘御’로 석문한다. 1호간의 자형은  (尗)과  (午),  (卩)로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4호간 의 는 ‘午’의 중간 획이 과 같이 꺾여져 있다. <華母壺>의 와 <弭弔盥>의 처럼 ‘午’의 중간 획이 다른 형태로도 쓰인 사례가 있으므로  또한 ‘午’로 석문한다.



(7) ‘克’의 고문자 자형을 살펴보면 <利簋>에서는 을 ‘克’으로 석문한다. 또한 郭店楚簡 《緇衣》 19호간의 도 ‘克’으로 석문한다. 이와 더불어 ‘又’가 더해진 ‘克’도 있다. 郭店楚簡 《老子乙》 2호간의 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上博楚簡 《周易》에서 쓰인 ‘克’ 모두 ‘又’가 존재하는 자형이다. 4호간의  과 5호간의  모두 ‘又’가 추가된 자형이므로 ‘夔’과 같이 석문하도록 한다.

(8) 4호간의  를 ‘歸’로 석문한다. ‘歸’의 ‘帚’를 청동기 銘文에서 찾아보면  (<女歸卣>)와 같은데  로 석문하고 ‘歸’로 석독하는  (<令鼎>)의 우측 편방과 일치한다. 이는  의 우측 편방과 자형 구조가 유사하다. 또한 《孔子詩論》 10호간  , 包山楚簡 43호간  , 郭店楚簡 《六德》 11호간  모두 ‘歸’로 석문하며 4호간  과 자형이 동일하다. 따라서  는 ‘歸’로 석문한다.



3.2 5號簡












(9)  는 ‘示’를 부수로 삼고 ‘咎’을 성부로 삼는 자형이다. ‘咎’은 《說文》에서 “目病生翳. (눈에 병이 생겨 가림막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의미가 인신되어 재앙, 과오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4호간  는 “재앙”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示’를 추가한 것이다. 《說文》에서 ‘示’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天畀象, 見吉凶, 所以示人也. …… 觀乎天文, 以察時變, 示神事也. (하늘에서 象을 내려주는 것으로 길흉을 보여 사람들에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 천문을 관찰하고 시간의 변화를 살펴서 신이 하는 일을 보여준다.)”와 같다. 그래서 ‘示’가 부수로 쓰인 한자는 길흉과 관련된 조짐이나 이와 관련된 각종 제사 의식 등을 뜻한다.  도 문맥상 “재앙”을 나타내며 ‘示’가

이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生, 木, 示가 상하 구조로 배치 되었으므로 ‘’으로 석문한다.

(10) 는 ‘’의 이체자로 ‘’로 석문한다. ‘’의 갑골문 자형은 ‘’ (鐵 12.4)’과 같다. 청동기 銘文에서 ‘’은 <免盤> 과 같은 자형도 있으나 대체로 <免盤> 과 같이 ‘’가 추가된 자형도 볼 수 있다. 楚簡 ‘’은 다양한 이체자 형태가 있다. 郭店楚簡 《老子甲》 2호간 을 비롯하여 上博楚簡 《孔子詩論》 6호간 과 같이 아래 두 획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包山楚簡 159호간 처럼 ‘’를 추가하지 않고 ‘’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郭店楚簡 《語叢一》 2호간 처럼 에 ‘’를 더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上博楚簡 《民之父母》 8호간 ‘’는 ‘’의 하단부를 잘못 인식하여 ‘’로 쓰기도 했다. 8호간 ‘’가 포함된 구절은 夙夜基命宥密(성왕께서는 편히 노시지 못하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천명을 터전으로 넓히고 편하게 되도록 힘쓰셨네.)이다.¹⁰⁾ 이는 《詩經》 周頌편에 속한 <昊天有成命>의 일부분과 일치하므로 ‘’은 ‘’으로 석독될 수밖에 없다. 甲骨文, 清동기 銘文, 楚簡를 살펴봤을 때, ‘’의 고문자 자형은 와형(譌形)을 제외한 모든 자형이 항상 人, 一, 丨을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다. 은 전래본 《周易》과 대조해볼 때, ‘’에 해당하므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단부의 은 ‘’의 고문자 자형과 유사하지만 運筆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즉, 위에서 우측 아래로 ‘’ 형태로 쓰고 나머지 두 획






10)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上海古籍出版社, 2002년 12월, 166쪽.

을 쓴 것이다. 본래 'ㄱ'과 같이 내부에 둥근 획이 있어야 하지만 희미해져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運筆 방식으로 볼 때  또한 '二'와 '卍'로 구성된 것이 확실하므로 는 '命'으로 석문한다.

(11) 은 '糸'를 부수로 삼고 우측 편방을 성부로 삼는 자형이다. 전래본《周易》은 '繫'으로 쓰였고 帛書本《周易》은 '般'으로 석문했다. "繫帶"는 가죽으로 만든 큰 허리띠로 고대 관리들의 복식(服飾)과 관련 있는 물건이었다. 주덕희(朱德熙), 구석규(裘錫圭)는 <信陽楚簡考釋(五篇)>에서 을 '繫'으로 석독했는데 실로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므로 '繫'으로도 석독이 가능하다고 했다.¹¹⁾ 따라서  역시 허리띠와 관련 있는 자형이므로 '糸'가 부수이다. '繫', '般' 두 자형은 공통적으로 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 역시 '般'과 발음상 통할 가능성이 높다. 에서 '田'의 상단부 자형에 대하여 주파(周波)는 郭店楚簡《老子》 25호간 , 上博楚簡《容成氏》 45호간 를 토대로 '畔'으로 석문했다.¹²⁾ 이는 과 자형이 일치하므로 '畔'의 이체자로 석문할 수 있다. 하림의(何琳儀)의《戰國古文字典》을 살펴보면 侯馬盟書 과 같은 자형을 볼 수 있다.¹³⁾ 이는 '八(八)'과 '斗(斗)'가 결합된 '斗'으로 '半'의 이체자이다. 또한 '斗'로 석문하는 자형 중에서 <中私官鼎> 도 있는데 의 윗부분과 동일하다. 따라서 하림의(何琳儀)가 분석한대로 '緝'으로 석문한다.

11) 朱德熙·裘錫圭, <信陽楚簡考釋(五篇)>, 《考古學報》, 1973년 1期, 121~129쪽.
 12) 周波, <竹書周易考釋三則>, 簡帛研究, 2004년 6월 6일.
 13)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中華書局, 1998년 9월, 1055쪽.

3.3 6號簡

(12) 의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 ,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鹿', '刀', '衣'가 상중하 구조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는 전래본 《周易》에서 '褫'에 해당하는 자형으로 “옷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의복과 관련된 행위를 표현하므로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衣'가 부수가 되어야하며 나머지 구성 요소는 성부로 간주해야 한다. 이를 기본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위의 연구자들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옥승(季旭昇)은 《戰國古文字典》을 근거로 '爪'자의 이체자 중에서 '刀'와 유사한 자형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래서 '鹿'을 부수로 삼고, '裘'를 성부로 간주해야 하며 '裘'은 '楊', '狄'과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褫'와도 발음이 통한다고 했다. 또한 '薦'의 楚문자는 '𠂔'과 '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𠂔'이 후자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薦'의 이체자라고 했다.¹⁴⁾ 비교적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부수와 성부를 잘못 파악하였으며 戰國時代 문자는 형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태상의 유사성만으로는 자형을 확정할 수 없다.

양택생(楊澤生)은 이 자형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鹿'과 '泉'은 상고음으로 모두 來紐玉部에 속하며, 고문헌 중에서 '鹿'으로 구성된 자형이 '泉'자로 구성된 자형과도 통한다는 점이다.¹⁵⁾ 大東文化大學도 《說文》에서 “麓, 守山林吏也. 從林鹿聲. …… 𠂔, 古文從泉.”, “簾, 竹高篋也. 從竹鹿聲. 籛, 籛或從鹿” 등의 분석을 제시하여 양택생(楊澤生)의 견해를 뒷받침했다.¹⁶⁾

14) 각주 4번과 동일.

15) 楊澤生, <竹書周易筭記(一)>, 簡帛研究, 2004년 5월 8일.

16) 池田知久 監修, 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編, 《上海博楚簡的研究(一)》, 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研究班, 2007년 3월 1일, 127쪽.

이를 근거로 하면 ‘𧰨’은 “사물의 외피를 벗기다”라는 ‘剝’과 옷과 관련된 한자임을 뜻하는 ‘衣’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전래본의 ‘褫’와 의미상으로 통한다. 하지만 𧰨의 구성 요소 배치가 상중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택생의 석문을 수정하여 ‘褫’와 같이 석문한다.

4. 원문 확정 관련 譯註


4.1 4號簡

(13) 우성오(于省吾)는 《甲骨文字釋林》의 <釋孚>에서 “孚’는 後期字이며 갑골문에서는 ‘孚’를 ‘俘虜’의 ‘俘’로 해석했다”라고 설명했다.¹⁷⁾ 또한 <小孟鼎> “孚人萬三千八十一人, 孚馬□□匹, 孚車十兩.”과 같은 명문이 있다. 여기도 갑골문과 같이, ‘孚’는 “포로”, “포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한편, 고대 전적에 쓰인 ‘孚’는 주로 신용, 진실된 마음, 신복 등의 의미로 쓰였다. 《詩經·下武》의 “王配于京, 世德作求。永言配命, 成王之孚。(왕께서 서울에서 뜻을 받드니 대대로 덕을 추구하시네, 영원토록 하늘의 명에 걸맞도록 왕으로서의 믿음을 이루시네)”에 대해 정현(鄭玄)은 “孚, 信也.”라고 했다. 또한 《左傳·莊公十》의 “公曰, 犧牲玉帛, 弗敢加也, 必以信。對曰, 小信未孚, 神弗福也。(공이 가로되, 희생과 옥백을 바치면서 감히 거짓을 더하지 않고 반드시 성심을 다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것은 작은 믿음에 불과할 뿐이지 큰 믿음은 아니며, 사직의 귀신은 그것으로 복을 내려주진 않습니다.)”에서도 두예(杜預)는 “孚, 大信也.”라고 했다.

전래본 《周易》은 일반적으로 ‘孚’가 쓰인 爻辭는 “믿음”이나 “진실된 마음”

17)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2009년 9월, 298쪽.

의 의미로 풀이한다. 하지만 大東文化大學은 전래본 《周易》에서도 문맥에 따라 ‘孚’를 청동기 銘文의 용례처럼 “포로”, “포획하다”로 풀이해야 한다고 했다.¹⁸⁾ 예를 들어 萃卦의 六二와 升卦의 九二 중에서 “孚乃利用禴”의 ‘孚’를 “진실된 마음”보다는 “포획”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흥(高亨), 이경지(李鏡池)도 일부 卦辭에서 “포로”, “포획하다”의 의미로 풀이했다. 이경지(李鏡池)는 訟卦의 ‘孚’를 “포로”로 풀이하여, “有孚, 窒惕, 中吉, 終凶.”을 “포로”를 얻었으니 경계하여 포로가 도망갈 것을 막아야 하며 잠깐 동안 아무 일 없겠지만 결국에는 도망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풀이하고 포로가 된 후, 도망은 일종의 투쟁(訟) 수단이라고 설명했다.¹⁹⁾ 이는 역대 주석가의 견해와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해석에 근거하여 “진실된 마음이 있어도”로 해석하기로 한다.

(14) 3장 역주 (2)번에서 을 ‘陟’의 이체자를 성부로 삼는 ‘憲’로 석문했다. ‘陟’은 상고음으로 ‘端紐職部’이다. 전래본 《周易》에 쓰인 ‘窒’은 ‘端紐質部’이므로 성부가 같고 운부는 같은 입성운에 속하므로 旁傳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上博楚簡 《周易》에서 전래본 《周易》과 반드시 같은 한자를 사용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자형도 ‘心’을 부수로 삼고 ‘陟’을 성부로 삼는 자형이며, 그 다음 자형도 ‘心’을 부수로 삼고 있으므로 ‘憲’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뜻하는 한자로 석독하기로 한다. 또한 이경지(李鏡池)도 《周易通義》에서 《廣雅·釋詁二》를 근거로 ‘窒’은 가차하여 ‘恠’로 쓸 수 있고 ‘懼’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²⁰⁾ ‘窒’과 ‘恠’ 모두 ‘至’를 포함하고 있으며, ‘至’의 상고음은 ‘章紐質部’이다. ‘陟’의 상고음과 비교해볼 때 운부는 같은 입성운으로 旁轉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부는 舌上音인 ‘章紐’과 舌頭音인 ‘端紐’인데 이 두 발음은 본래 상고음 체계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했으나 역대로 舌上音에 변화가 생기

18) 각주 14번과 동일, 93쪽.

19) 李鏡池, 《周易通義》, 中華書局, 1981년 9월, 15쪽.

20) 각주 17번과 동일.

면서 근래에는 왕력(王力) 등이 이 두 발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상고음에서는 무리 없이 통할 수 있는 성부인만큼 ‘陟’과 ‘至’를 성부로 가지는 한자는 通假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薰’는 ‘恠’로 석독한다.

(15) 3장 역주 (3)번에서 석문한 ‘薰’의 ‘薰’는 상고음으로 “端母錫部”, 전래본 《周易》의 ‘楊’은 “透母錫部”이다. 운부가 동일하며 端母와 透母는 모두 舌頭音이므로 通假 관계를 맺을 수 있다. 《集韻》에서도 “禧, 或作楊, 緇.”라고 했으므로, ‘薰’과 ‘楊’ 또한 通假가 가능하다.

(16) “不出御事”는 전래본 《周易》과 帛書本 《周易》 “不永所事”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不出御事”는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이며, “不永所事”는 “어떤 사건을 길게 끌지 않는다”이다. 上博楚簡 《周易》의 訟卦 전체를 전래본과 帛書本과 비교했을 때, 楚簡本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다. 대부분의 구절은 자형상의 차이는 있어도 석독할 경우 내용상으로는 일치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자형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不出御事”를 “不永所事”와 해석상의 연계를 시도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제시한 하림의(何琳儀)와 요명춘(廖明春)의 분석이 그것이다.²¹⁾ 하지만 하림의(何琳儀)가 제시한 ‘永’, ‘引’, ‘出’의 관계는 부적절하다. 《詩經》에서 “永日”의 ‘永’은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며, 《文選》의 ‘引’은 “취하다”라는 의미이다. 의미항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 한자를 서로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요명춘(廖明春)은 ‘引’을 ‘迕’로 석독한 것을 전제로 “不永迕事”라는 해석을 도출했다. 하지만 ‘引’은 ‘迕’로 석독할 수 없다.

‘御’의 금문자형을 살펴보면 御(競簋), 御(孟鼎)과 같은 자형이 있다. ‘午’와 ‘冂’의 결합한 형태로 ‘引’의 초문 형태에 해당한다. 즉, ‘引’에서 ‘午’와 ‘冂’은

21) 廖明春, <楚簡周易校釋記(一)>, 《周易研究》, 2004년 第3期; 何琳儀·程燕, <滬簡周易選釋>, 《江漢考古》, 2005년 第4期.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구성 요소이며, 생략할 경우 본의가 달라지므로 요명춘(寥明春)의 해석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필자는 楚簡本의 “不出御事”을 帛書本, 전래본과 연계해서 풀이하기보다 楚簡本의 구절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御事”는 先秦 시기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휘이다. 복모좌(濮茅左)가 제시한 《國語·周語》의 “百官御事” 외에도 《尚書》에도 “御事”는 많이 등장하는 어휘이다.²²⁾ 大東文化大學에서 제시한 <牧誓>의 “王曰, 嗟, 我友邦豕君, 御事司徒司馬司空, 亞旅師氏, 千夫長百夫長, 及庸蜀羌髳微盧彭濮人. (왕이 말씀하시길, 아, 우리 우방의 豕君과 일을 처리하는 司徒, 司馬, 司空과 亞, 旅, 師氏와 千夫의 우두머리와 百夫의 우두머리 그리고 庸, 蜀, 羌, 髳(모), 微, 盧, 彭, 濮의 사람들과)”를 비롯하여 <泰誓>의 “王曰, 嗟, 我友邦豕君, 越我御事庶士, 明聽誓. (왕께서 가로되, 아! 우리 우방의 豕君과 나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와 군사를 맡은 자들은 분명히 맹세하는 말을 듣도록 하라.)”도 그러하다.²³⁾ 이처럼 “御事”에 대한 용례가 있기 때문에 “不出御事”는 충분히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17) 大東文化大學은 ‘克’이 조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周易》에서 ‘克’이 “이기다”의 의미가 아닌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하다”로 사용된 용례를 소개했다.²⁴⁾ 하지만 기존 《周易》 연구서는 ‘克’을 “이기다”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공영달(孔穎達)은 “克, 勝者”라고 하였고 이경지(李鏡池), 고히(高亨)도 마찬가지로 ‘勝’으로 풀이했다. ‘克’이 “이기다”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周易·既濟》의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3년 만에 이겼으니)”와 《左傳·隱公十》의 “八月壬戌, 鄭伯圍戴. 癸亥, 克之, 取三師焉. (8월 壬戌일, 鄭伯이 戴를 포위했다. 癸亥일에 승리하여 세 나라 군사를 포로로 취했다.)”, 《呂氏春秋·爰士》의 “遂大克晉, 反獲惠公以歸.







22)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 上海古籍出版社, 2003년 12월, 142쪽.

23) 각주 14번과 동일, 108쪽.

24) 각주 21번과 동일.

(끝내 진을 크게 이기고 다시 혜공을 잡아 돌아왔다.)”과 같다. ‘克’이 ‘勝’의 의미로 사용되려면 ‘克’ 다음에 이긴 대상이 나온다. 하지만 “不克訟”은 ‘克’ 다음에 행위를 나타내는 ‘訟’이 왔으므로 ‘勝’보다는 “~할 수 있다” 또는 “능히 감당하다”의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따라서, 大東文化大學의 설명에 따라 ‘克’을 조동사의 의미로 해석한다.

(18) 大東文化大學은 ‘膚’의 성부 ‘夫’와 ‘逋’가 상고음으로 모두 幫母魚部에 속하므로 통가될 수 있다고 했다.²⁵⁾ 이 설명에 따라 ‘逋’로 석독한다. 《象傳》에서도 “不克訟，歸逋竄也.”이므로 ‘竄’과 ‘賦’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이를 ‘賦’로 석독하면 “九二”의 본의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逋’가 더 타당하다.

(19) 帛書本과 전래본에서는 ‘四’가 아니라 ‘百’이다. 복모좌(濮茅左), 이령(李零), 요명춘(寥明春)은 ‘百’과 ‘四’의 차이가 자형상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쓰인 것이라고 했다. 복모좌(濮茅左)는 ‘四’가 맞고 요명춘(寥明春)은 ‘百’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四’와 ‘百’은 자형상으로 비슷하지 않다. 청동기 명문에 쓰인 ‘四’는 일반적으로  (<命瓜君壺>)와 같으며 일부 청동기에서  (<大梁鼎>)와 같은 자형을 볼 수 있다. 또한 楚簡에 쓰인 자형을 비교해보면 ‘四’는  (郭店楚簡《六德》3),  (包山楚簡 256),  (包山楚簡 111)와 같으며 ‘百’은  (包山楚簡 138)와 같다. 자형을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형태를 쉽게 혼동하여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형태를 잘못 인식했다기보다는 “三四” 또한 “三百”과는 다른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림의(何琳儀)도 ‘四’와 ‘百’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계욱승(季旭昇)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三百戶”와 연계하지 않고 “三四戶”가 “十二戶”라고 해석했다.²⁶⁾ 그의 의견을 요

25) 각주 14번과 동일, 111쪽.

26) 季旭昇, <上博三·周易·訟卦二題: 懷,其邑三四戶>, 《中國文字》 新31期, 2005년 11월.

약해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九二，不克訟，歸逋，其邑人三四戶，無眚。”에 대한 왕필(王弼) 注에서, “以剛處訟，不能下物。自下訟上，宜其不克。若能以懼歸竄其邑，乃可以免災。邑過三百，非爲竄也，竄而據強，災未免也。(剛으로 쟁송의 상황에 처하니 다른 이보다 낮추지 못한다. 아래에서 위로 송사할 수 없으니 마땅히 능히 하지 못한다. 만약 두려워하며 읍에 돌아가 숨을 수 있다면 재난은 면할 수 있다. 읍이 삼백호를 넘으면 숨는 것이 아니라 숨더라도 강한 세력에 의지하려함이니 재앙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이 爻辭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訟事에서 이기지 못하면 두려워하며 돌아가 ‘邑’에 숨는다는 의미로 파악한 것인데, “三百戶”는 작은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邑’의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고자 쓰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論語·公治長》의 “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열채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나와 같은 자가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와 《穀梁傳·莊公九》의 “十室之邑，可以逃難。(열채 정도의 작은 마을이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를 제시했다. 그리고 “三四戶”를 “서너 채”가 아닌 “열두 채”로 해석했다. 두 수를 서로 곱해서 두 자리 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미 선진 시기 문헌에서도 사용되었던 용례이므로 이를 “열두 채”로 풀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²⁷⁾ 《論語》나 《穀梁傳》에 제시된 용례와 수량도 비슷하므로 작은 규모의 읍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邑’의 규모가 역사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점을 금악(金鶚)의 《求古錄禮說》을 근거로 설명하고 초간 작성자는 ‘邑’을 작은 규모로 인식했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三四戶”로 기록했음을 증명했다.

결국, ‘四’와 ‘百’이 다르게 쓰인 것은 ‘邑’의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다.

27) 《左傳》<襄公十一>: “鄭人賂晉侯以師裡，師觸，師闕，廣車，輶車，淳十五乘，甲兵備，凡兵車百乘，歌鐘二肆，及其鑄，磬，女樂二八。(정나라 사람이 진후에게 사희, 사축, 사건을 보냈다. 광기와 둔거가 짝을 이루어 15승이씩 보내어졌다. 수레에는 갑옷과 무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무릇 병거 백 승, 가솔 두 벌 및 여악 16명이 헌납되었다.)”

즉, 후대 학자들이 ‘畀’의 규모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하여 수적인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자형상의 오류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가를 따져 爻辭를 단일 의미로 확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爻辭를 해석하는데 시대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옥승(季旭昇)이 제시한 왕필(王弼), 공영달(孔穎達), 주희(朱熹) 등은 “三百戶”가 작은 규모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경지(李鏡池)는 訟卦의 성격을 생산과 민족, 계급 간의 갈등으로 유발된 투쟁의 관점에서 訟卦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邑人”을 노예로 간주했다. “三百戶”에 거주하는 “邑人”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치기만 했기 때문에 재앙을 면했다고 보았으니 “三百戶”의 규모를 크게 보았다. 따라서, 上博楚簡《周易》에서 “三四戶”라고 한 것은 자형을 잘못 인식했다고 할 수 없다.

(20) ‘飮’과 ‘食’은 “먹다”, “음식”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상고음으로 모두 邪紐職部에 속하므로 通假 관계를 맺을 수 있다. 《說文》에서 “飮, 糧也.”에 대해 단옥재(段玉裁)는 “以食食人物, 本作食, 俗作飮, 或作飼. (음식을 사람에게 먹이는 것으로 본래 食으로 쓰며, 俗語로는 飮로 쓰며, 또는 飼로도 쓴다.)”라고 했다.²⁸⁾ 銘文에서도 ‘飮’와 ‘食’이 통가되는 용례를 볼 수 있는데, <余義鍾>의 “飲飮譚舞”에서 ‘飮’은 ‘食’과 통하며 <哀成叔鼎>의 “乍鑄飮器”에서도 ‘飮’은 ‘食’과 통한다. 5호간 ‘飮’도 ‘食’으로 석독한다.

(21) “王事”는 왕이 하달한 명령을 통해 벌어지는 모든 공적인 일을 말한다. 곽말약(郭沫若)은 《中國史稿》에서 “왕과 국가는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중대한 국가 사무를 ‘王事’로 칭한다.”고 했다.²⁹⁾ 《詩經·邶風·北門》에서 “王事適我, 政事一埤益我. 我入自外, 室人交徧譚我. 已焉哉, 天實爲之, 謂之何哉. (나랏일 내게 돌아오고 정사도 모두 내게 더해지네, 내가 밖에서 돌아가니 집안의

2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년 10월, 220쪽.

29) “王和國家是一體的, 所以一切重大的國家事務都被稱爲‘王事’.”

사람들은 돌아가며 모두 나를 책하네, 그만두자, 실제로 하늘이 하시는 일인데 말해 무엇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王事”가 국가 사무를 지칭한다.

한편으로 “王事”의 범위를 좁혀 조빙(朝聘), 회맹(會盟), 정벌 등의 왕조의 大事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禮記·喪大記》에서 “君言王事, 不言國事. (군주는 왕의 일을 말하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손희단(孫希旦)은 《禮記集解》에서 “王事, 謂朝聘會盟征伐之事. 國事, 政令之施於一國, 以治其人民者也. (王事は 조빙, 회맹, 정벌의 일을 말하고 국사는 한 나라에 정령이 시행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했다.

<訟卦>의 “或從王事”를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각각 의미를 반영해보면 “국가의 정사에 종사해도”와 “왕조의 대사에 종사해도”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訟卦의 내용과 부합하는 해석은 “왕조의 대사에 종사해도”이다. 大東文化大學은 “王事”라는 표현은 《周易》에서 왕의 직무, 전쟁, 수렵, 제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詩經》에서는 軍事와 관련된 상황을 많이 지칭한다고 했다. 《詩經·小雅·北山》에서 “陟彼北山, 言采其杞. 偕偕士子, 朝夕從事. 王事靡盬, 憂我父母. (북산에 올라가 구기자를 따네, 튼튼한 벼슬아치가 아침저녁으로 일을 하지만, 왕의 일이 끊임없이 부모님 걱정되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王事”는 군사(軍事)와 관련된 상황을 지칭한다고 했다. 또한 이경지(李鏡池)도 “王事”를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 풀이하여 “전쟁”으로 정의했다.訟卦에서 언급한 “王事”를 전쟁과 같은 구체적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訟卦의 卦辭와 爻辭가 訴訟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王事”는 국가 내부의 일반 행정 사무보다는 한 왕조 내부에서의 일, 또는 왕조 간의 교류나 정벌 활동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王事”는 “왕조의 대사”로 해석한다.

(22) ‘緇’은 ‘畔’의 이체자를 성부로 삼는 자형이다. 이는 전래본 《周易》에서 ‘黷’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자형이다. ‘畔’의 상고음은 並母元部이며 ‘黷’도 ‘畔’

과 마찬가지로 竝母元部에 속한다. 따라서 두 자는 通假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繫’으로 석독한다. 또한 복모좌(濮茅左)는 ‘繫’이 ‘帶’의 繁文이라고 했다. 大東文化大學은 ‘繫’이 包山楚簡과 九店楚簡《日書》에서 쓰인 용례를 제시하며 ‘冠’, ‘劍’과 더불어 신분이 있는 사람들의 예복 중 하나라고 했다.³⁰⁾ 특히 包山楚簡의 “歸冠帶於二天子.”을 통해서 ‘冠’과 ‘帶’가 고위 관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論語·公冶長》의 “赤也，束帶立於朝，可使與賓客言也，不知其仁也。(赤은 대를 두르고 조정에 서서 빈객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大東文化大學의 설명대로 “繫帶”도 관리를 상징하는 禮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3) 褻은 ‘剝’으로 석독한다. 褻의 석문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剝’의 이체자와 ‘衣’가 결합된 자형이다. ‘剝’은 《說文》에서 “쪼개다(裂)”라고 정의하였으며, 《詩經·楚茨》에서는 “濟濟跄跄，絜爾牛羊，以往烝嘗。或剝或亨，或肆或將。(여럿이 왔다갔다 하며 소와 양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지내러 가니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삶기도 하며 벌여놓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네.)”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廣雅·釋詁四》에서 “剝，脫也.”라고 했는데, ‘脫’은 입고 있던 옷이나 모자, 신발 등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다. 《莊子·寓言》에서 “脫履戶外。(문 밖에서 신을 벗고)”의 ‘脫’이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禮記·檀弓上》에서 “喪不剝尊也與.”에 대한 주석에서 “剝，猶僕也.”라고 했다. 이것과 부수 ‘衣’를 연계하면 “옷을 벗기다, 옷을 빼앗다”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래본 《周易》 ‘褻’의 의미상 일치한다. 따라서 褻는 ‘剝’으로 석독한다.

30) 각주 14번과 동일, 126쪽.

5. 결론

고문자 隸定 관련 역주와 원문 확정 관련 역주를 통해서 上博楚簡 《周易》 訟卦의 내용과 전래본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판본에 쓰인 괘효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어휘 용법상 차이가 있었으며 판본이 전해지는 과정 중 와전(訛傳)되거나 덧붙여진 표현들도 있었다. 또한 같은 어휘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上博楚簡 《周易》본의 “其邑人三四戶”와 전래본 “其邑人三百戶”에서 시대마다 ‘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효사가 달라지니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또한 ‘克’과 같이 현재는 쓰이지 않지만 先秦 시기 조동사 용법으로 쓰여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하다”로도 해석한다. 본 역주는 <訟卦>에 한정하여 이와 같은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나 <訟卦>에서 발견한 차이점을 토대로 전래본의 다른 괘효사(卦爻辭)에 적용한다면 좀 더 원형에 가까운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阮 元, 《十三經注疏 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1.
 [清]孫希旦,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9.
 [清]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周易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李鏡池, 《周易通義》, 北京: 中華書局, 1981.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0.
 張學良, 《馬王堆帛書周易經傳校讀》, 北京: 中華書局, 2008.
 韓自強, 《阜陽漢簡周易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高 亨,《周易古經今注》,北京:中華書局,1987.
- 侯乃峰,《周易文字彙校集釋》,臺北市:臺灣古籍出版有限公司,2009.
- 池田知久 監修,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 編,《上海博楚簡の研究(一)》,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研究班,2007.
- 張桂光,《古文字論集》,北京:中華書局,2004.
- 劉釗,《古文字構形學》,福州:福建人民出版社,2006.
- 于省吾,《甲骨文字釋林》,北京:中華書局,2009
- 林宏明,《戰國中山國文字研究》,北京:中國古籍出版有限公司,2002.
- 朱德熙·裘錫圭,〈信陽楚簡考釋(五篇)〉,《考古學報》,1973年 1期.
- 季旭昇,〈上博三周易簡六“朝三褫之”說〉,簡帛研究網,2004年 4月 16日.
- 季旭昇,〈上博三·周易·訟卦二題:懷,其邑三四戶〉,《中國文字》新31期,2005年 11月.
- 寥明春,〈楚簡周易校釋記(一)〉,《周易研究》,2004年 第3期.
- 楊澤生,〈竹書周易筮記(一)〉,簡帛研究網,2004年 5月 8日.
- 楊澤生,〈竹書周易中的兩個異文〉,簡帛研究網,2004年 5月 29日.
- 何琳儀 程燕,〈滬簡周易選釋〉,《江漢考古》,2005年 第4期.
- 周 波,〈竹書周易考釋三則〉,簡帛研究網,2004년 6월 6일.
- 蘇建州,〈楚文字雜識〉,簡帛研究網,2005年 10月 30日.
- 陳斯鵬,〈讀上博竹書(五)小記〉,簡帛網,2006年 4月 1日.
- 何琳儀 程燕 房振三,〈滬簡周易選釋(修正)〉,《周易研究》,2006年 第1期.
- 원용준,〈上博楚簡주역 訟괘 고찰〉,《儒教思想文化研究》第60輯,2015년 6월.
- 容 庚,《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5.
- 張守中 撰集,《睡虎地秦簡文字編》,北京:文物出版社,1994
- 何琳儀,《戰國古文字典—戰國文字聲系》,北京:中華書局,1998.
- 饒宗頤主編,《上博藏戰國楚竹書字匯》,合肥:安徽大學出版社,2012.
- 張守中,張小滄,郝建文 撰集,《郭店楚簡文字編》,北京:文物出版社,2000.
- 李守奎等,《包山楚墓文字全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Abstract >

In the hand-down documents <周易>, hexagram song (訟卦)'s '訟' includes a completely negative image as it means 'to litigate' or 'to appeal,' but demands the adoption of a careful demeanor in order to not cause a dispute. Our paper analyzes the character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hu state in the Shanghai Museum Bamboo slip <Zhou yi (周易)> hexagram song (訟卦) that is identical in content to this, and in so doing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it and the traditional work. 訟卦 doesn't show a big difference between characters and vocabulary, but we do see a difference when we translate the meaning. We presume that this is a reflection of the age of civil wars' linguistic habits that we were unable to confirm in the traditional work, but The Chu state in the Shanghai Museum Bamboo slip is the oldest edition of the <Zhou yi (周易)> editions, and because it was did not get through editing by the people who came after, the original appearance was not able to be saved. Therefore, we came to understand the original form of hexagram song (訟卦) and is expected to be quite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with successive translations.

Key words: The Chu state in the Shanghai Museum Bamboo slip, Zhou yi, hexagram song, excavated documents, hand-down document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7. 31.	2016. 8. 28.	2016. 8. 30.	2016. 9. 20.	2016. 9. 30.